하나님의 '줬다 뺏기' 쿠폰

(여호수아 21:1~45)

1. 그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2.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줬다 뺏기' 쿠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줬다 뺏기' 쿠폰

흔한 말로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사회를 보았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미스 콜롬비아를 미스 유니버스로 발표했는데 심사 위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스 필리핀이 미스 유니버스로 뽑혔는데 잘못 발표한 것입니다. 미스 필리핀은 최종적으로 미스 유니버스로 뽑히게 되어 기뻤겠지만, 미스 유니버스로 발표되었다 취소된 미스 콜롬비아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촌극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받았다가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방학 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장학 재단으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주는 장학금에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학생으로 거의 벌이가 없이 살 때였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학기가 시작하도록 등록금이 나오지 않아서 학생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재단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장학금으로 보장해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주어져있는 장학금은 다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학교에서 한 학기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났는데 이런 것이 정말 줬다 빼앗기 아닙니까? 그 서운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질 않았으면 상처는 없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몫으로 자기 기업의 땅을 할당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성경이 반복하기 때문이니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레위인은 전국에 흩어져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도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등 각종 신앙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명령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가 이미 할당 받은 땅 중에서 전국으로 흩어지는 레위인들에게 거처를 주고, 제사 등에 쓸 수 있는 가축(소, 양, 염소)들을 길러야 하므로 목초지가 붙은 성읍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그 규정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처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에 맞추어 전국에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각 지파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거처를 삼는 것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봅니다.
아직 예수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요원하지만, 회막에서 떠나있어도 하나의 신앙공동체라는 것이 첫 번째 의의입니다. 레위인이 선민들을 하나로 묶는 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는 생업에 종사하는 일상생활의 현장에 레위인들이 함께 거하게 됨으로서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방인들 세계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레위인들 때문에 나의 사업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삶에서 구체화되는 현장을 봄으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지파들 속에 살게 되는 의의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 받아서 떠날 때에 레위인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하는 일은 분배받은 땅을 다시 빼앗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할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인데 레위인이 따라가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할당 받은 곳에서 살려고 하는 선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땅을 빼앗습니다. 선민들의 몸과 물리적인 환경에는 그 땅이 그대로 주어져 있지만, 선민들의 마음으로부터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레위인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존재의 의미는 선민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이고 더 진짜인 참 기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삶의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에 마음을 사업에 다 쏟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 자식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을 다 쏟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여분의 마음이 없게 될 때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레위인을 보며 아이가 묻습니다. ‘저 아저씨는 왜 농사도 안 짓고 바다에 가서 고기

도 안 잡아?' 그러면 엄마가 '저분들은 레위인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레위인이 존재하게 됨으로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해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마3:17절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라"는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귀결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선민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기뻐지는 것이 바로 모든 율법에 가장 우선되는 정신인 것입니다. 율법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하면 이웃 사랑이 반드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과 만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웃을 만날 때에 전혀 내 필요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겠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와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일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들어와 계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항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담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담게 되는데 이것이 끈질긴 죄의 습성이고 죄의 경향입니다. 마음에 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뜻하고 힘을 씁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나타난 죄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의 희로애락의 상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담는 것으로 인해 유발이 됩니다. 내가 자식을 마음에 담았으면 자식의 상태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발현됩니다. 사업을 담으면 사업에 따라서, 애인을 담으면 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나타납니다.
다른 이방종교가 신에게 나아갈 때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담은 채로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담은 것을 잘되기 위한 뇌물이 신을 향한 경배나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들을 다 마음으로부터 제거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이유는 이방종교 식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마음에 담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서,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고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함으로 정말 끈질기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 인간의 죄적 습성을 이용해서 대 반전을 이루십니다. 타락 이후에 유전적으로 생긴 죄적인 습성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마음에 담는 일을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바꾸어 버리시는데 놀라운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사건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죄적 습성으로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을 하나님 사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바꾸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레위인들이 쳤다 뺏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제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면 쳤다 뺏기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일을 레위인이 합니다. 땅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의 습성에 의해서 우리는 그 땅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 땅을 마음에 담은 상태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기쁜 진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에서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땅에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의 과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땅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살아서 향하여 가도록 했는데, 그 마음의 추진력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땅에 가서 붙은 마음과 땅을 담은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어린양이 죽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선민들이 하는 일은 지금 레위인들에 의해서 성전의 번제단에서 어린양이 죽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는다.'는 것은 '할당 받은 땅을 들여놓은 네 마음이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을 레위인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땅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 체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땅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대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마음 부분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땅뿐만 아니라, 할당 받은 땅위에서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 반복됩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마10: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푼돈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속

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 사랑에 방해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반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업장에서 일이 생겨서 마음을 빼앗겼다면, 내 마음을 빼앗은 사업장 일은 쿠폰이므로, 레위인의 일로서 이 사업장의 일을 다시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나 쿠폰이므로 이것을 단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혜택과 교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게 무료 시식 쿠폰이 있다면 식당에 가서 쿠폰을 주면 그것에 상응하는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빈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고 진짜 기업인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쿠폰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 있으면 얼른 번제단의 완성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 들어와서 판단되고 몰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얼른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두 가지 혜택을 주는 쿠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 마음은 진짜 기업인 하나님을 갖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마음에 두기를 그만둔 대상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되므로 빼앗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과 레위인의 존재가 뜻하는 바가 바로 쿠폰인 것입니다.
땅을 할당 받았다면 쿠폰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제출하면 내 마음은 진짜 기업인 하나님을 갖고, 내가 제출한 그 땅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되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레위인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줬다 뺏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뺏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쿠폰 내놓듯이 빼앗김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아내 사라도 쿠폰 내놓듯이 하나님께 내놓았고, 본토 친척 아비집도 내놓았고, 조카 롯과 땅을 나눌 때에 더 좋은 땅도 양보하여 내놓았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고 이것들이 다 쿠폰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이 신경 써야 될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마음으로 괴로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죄적 습성과 유전적 습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받아들여졌으면 십자가를 봄으로 내 마음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쿠폰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갖

게 되고, 쿠폰으로 드려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활동 장소가 되는데 이 혜택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든지 잘된 일이든지 얼마나 많은 일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다 쿠폰입니다. 세상에서 잘 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된 일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다 하나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활동장소가 되는 혜택과 교환하는 쿠폰입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쓰이는 모든 일들과 모든 대상들이 두 가지 혜택과 교환되는 쿠폰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쿠폰과 약속된 두 가지 혜택으로 교환하여 받아 누리시는 복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처럼, 내게 허락하시는 사소한 모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쿠폰으로 드림으로 쿠폰에 약속된 두 가지 혜택을 빵빵하게 누리는 복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